

G9 ‘온라인 베이비페어’ 4월3일까지

G9가 4월3일 오전 9시까지 ‘온라인 베이비페어’를 열고, 150여개 출산·유아 동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다. G9가 론칭한 이래 최대 규모로 전개되는 프로모션으로 육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총망라했다. 하기사, 파크론, 콤비코리아, 락피쉬키즈, 일룸 등 주요 브랜드의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선보인다.



볼보 ‘크로스컨트리’, 세단의 감성으로 SUV 넘다

실내 디자인·인테리어는 최고급 세단급
최대 1526리터 적재공간·활용성은 SUV

최고출력 235마력에 가속·고속주행
굿 실내공기청정 시스템·반자율주행 가능

자동차 스웨덴의 여름휴가는 보통 4~5주다. 가족을 위한 5주간의 휴가를 함께할 수 있는 최적의 차량, 그것이 바로 볼보 크로스컨트리가 만들어진 이유다. 온 가족이 세단에 탄 것처럼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서, SUV처럼 적재공간이 충분하고 때로는 협로 이동도 충분히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크로스오버 차량이 바로 크로스컨트리다.

●디자인의 혁신, 스웨디시 럭셔리리의 진수

크로스컨트리는 S90과 XC90에 이어 볼보의 혁신을 보여준 90시리즈를 완성하는 모델이다. 기존의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타봤거나 알고 있다면 그 기억은 완전히 지워도 좋다. 더 뉴 볼보 크로스컨트리는 XC90과 S90을 통해 보여준 볼보의 혁신적인 디자인 콘셉트와 럭셔리리한 인테리어가 고스란히 적용되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벤츠, 아우디, BMW 등 독일 3사의 최고급 세단 인테리어에 전혀 뒤지지 않는 실내 공간의 우아함은 스웨디시 럭셔리리는 것이 무엇인지 저절로 그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준다. 6990만원이라는 차량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실내 인테리어가 주는 감동은 신선하다.

전원 월넷 우드의 나뭇결, 최고급 소가죽인 나파 가죽 시트의 부드럽고 견고한 착좌감, 테블릿 PO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세로형 9인치 센터 콘솔 디스플레이(Center Console Display)가 은은하게 빛나는 센터페시아는 당장 차를 바꾸고 싶어질 만큼 매력적이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각종 버튼류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배치되어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도 마찰을 통한 정전기 방식이 아닌 적외선을 이용하는 방식을 적용해 운전중에도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 빛의 난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반사방지 코팅 처리를 하는 섬세함도 갖췄다.

각종 편의장치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2열에도 230V의 전기아울렛이 마련되어 있어 아웃도어 활동에 용이하고, 실내공기청정 시스템 기능이 포함된 ‘4 존 온도 조절(4 Zone Temperature Control)’ 기능까지 갖춰져 있다. 기능적인 편리함 뿐만 아니라 2열에 달려 있는 공조 시스템이라기에는 투박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답다.

적재 공간과 활용성도 SUV를 넘어선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560리터, 2열 좌석을 모두 폴딩하면 최대 1526리터의 공간이 확보된다.



볼보자동차 크로스컨트리는 멀티플레이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차종이다. 가족을 위한 차로 세단을 사야할지 SUV를 사야할지 고민이라면 크로스컨트리는 아주 현명하고 럭셔리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 주요 제원	
전장 (mm)	4940
전폭 (mm)	1880
전고 (mm)	1545
축거 (mm)	2941
공차중량 (kg)	1945
엔진 형식	직렬 4기통 트윈터보 디젤
구동방식	사륜구동
배기량 (cc)	1969
최고출력 (ps/rpm)	235/4000
최대토크 (kg·m/rpm)	49.0/1750~2250
변속기	8단 자동 기어트로닉
공인 연비	미정
출시 가격 (VAT 포함)	크로스 컨트리: 6990만원 크로스 컨트리 프로: 7690만원

신장 198cm의 성인이 차 안에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다. 2열 좌석은 60:40으로 완전 폴딩이 가능하고, 트렁크에는 발을 움직여 열 수 있는 핸드프리 테일게이트(Hands Free Tailgate)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의 강력함과 효율성

‘더 뉴 볼보 크로스 컨트리’에는 볼보자동차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드라이브-E 파워트레인(Drive-E Powertrains)’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적용되어 있다. 기존 파워트레인 라인업 대비 중량을 최대 45kg 절감하고, 연료 효율성은 최대 35% 개선했다. 덕분에 주행 감성도 디자인만큼 혁신적으로 진화했다.

최고 출력은 235마력(4000rpm), 최대 토크는 무려 49.0kg.m이다. 또한 최대 토크가 생황 가속 영역인 1750~2250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거대한 차체와 1945kg의 공차 중량이 전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중·고속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드럽고 날렵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시승 코스 중간 유명산 와인딩 로드에서 한 계속도로 과감한 코너링을 시도해도 마치 스포츠 세단을 운전하는 것처럼 단단하고 균형잡힌 몸놀림을 보였다. 또한 빠른 속도로 코너를 빠져나가며 직진 도로에서 속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때도 어떤 스트레스도 느껴지지 않았다.

낮은 RPM에서 빠른 가속력을 보여주는 디젤엔진의 장점과 높은 RPM에서 가속이 좋은 터보차저의 효율성이 잘 조화를 이뤘다. 덕분에 성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세단보다는 SUV에 가깝지만 어지간한 스포츠세단 못지않은 가속능력과 고속 직진 주행 성능을 갖췄다.

이처럼 진화한 주행 성능의 비결은 볼보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지능형 연료분사 기술 ‘i-ART(Intelligent Accuracy Refinement Technologies)와 파워펄스(Power Pulse) 기능 덕분이다. ‘i-ART’는 각 인젝터마다 설치된 인텔리전트 칩이 연료 분사압력을 모니터링하여 각 연소행정마다 최적의 연료량이 분사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고, 파워펄스는 디젤엔진에서 즉각적인 터보 반응을 이끌어 내어 기존의 디젤차량이 발휘할 수 없던 성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아울러 크로스컨트리는 스프링과 완충기(Sh

ock Absorber)의 뎀퍼컨디션을 조정한 투어링 새시를 사용해 오프로드에서의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앞뒤 윤거(track, 타이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각각 1652mm와 1643mm만큼 확보해 코너링 시에 좌우의 하중이동을 최소화해 장거리 투어링에서의 피로도를 줄였다. 또한 오프로드에서의 주행성 강화를 위해 ‘경사로 감속 주행장치(Hill Decent Control, HDC)’도 적용되어 있다. 세단과 SUV의 장점만을 흡수했다는 말은 결코 듣기 좋도록 만든 허황된 수식어가 아니다.

●혁신적인 반자율주행 가능

크로스컨트리의 화룡점정은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된 반자율주행(파일럿 어시스트 II) 기능이다. 두 가지 면에서 기존 기술들과 차별화된다. 자동으로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ACC(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daptive Cruise Control) 기술과는 달리, 전방에 감지되는 차량이 없어도 최고 140m/h속도를 유지하여 차선 이탈 없이 달릴 수 있게 해준다.

또, 기존 차선유지 기능보다 스티어링 휠에 더 강한 토크를 가해줄 수 있어 곡선도로에서의 자동 조향지원이 보다 원활해졌다. 차선유지 기능도 업그레이드 됐다. 기존 기능이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에 차량을 차선 내로 복귀시키는 개념이었다면, 파일럿 어시스트 II는 양쪽 차선 사이 중앙에서 차량이 달릴 수 있도록 해준다. 디자인, 인테리어, 성능, 공간 활용성, 반자율주행까지 크로스컨트리의 매력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원성욱 기자 sereno@donga.com

인천-파라다이스 시티 “의료관광 공동 마케팅”

의료기관·복합리조트 상호협력 추진

인천이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옆에 개장하는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와 손잡는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3일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에서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천의료관광 협력을 위한 팸투어’를 개최했다.

4월20일 개장을 앞둔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5분 거리에 있다. 카지노, 컨벤션, 아트갤러리 등 다양한 현대시설 및 위탁시설이 결합된 최초의 한국형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IR)이다.

이번 팸투어를 통해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가 상호협력하고 공동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3자 업무협약을 4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는 파라다이스시티 방문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 피부관리, 치과 진료,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과 진료와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등 25개 회원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해외환자 유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1년 발족한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는 인천시가 개발한 의료관광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한 외국인환자관리 및 정보공유 등 ‘헬스케어 시티 인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심성훈 K뱅크 은행장, 옥성환 K뱅크 경영기획본부장,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맹 이사,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맹 상임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뱅크

K뱅크, 4월3일 오픈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개시
최저 대출금리·최고 수신금리 추구

K뱅크가 4월3일 첫 영업을 시작한다.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오프라인 점포는 운영되지 않는다. 종이통장 없이 온라인으로 계좌개설·상품가입 등을 제공하고, 고객이 은행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과 웹에서 24시간 365일 모든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퀵 간편송금 ▲지문인증 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 ▲뉴얼 K통장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퀵 간편송금은 상대방 휴대전화번호로 계좌번호를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 금리는 최저 4%에서 최대 13%로 책정될 전망으로, 업계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와 최고 수준의 수신금리를 제공하겠다는 게 K뱅크 측 설명이다.

한편 이 회사는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와 금융분야의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포함해 청년이나 중소기업인,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큰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 jiyay@donga.com

신한카드, 대학생 통신비 환급 이벤트

신한카드가 LG유플러스와 맞손을 잡고 ‘신한학생증 체크카드’ 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환급 행사를 연다. 신한카드 학생증 체크카드를 소지한 대학생이 4월말까지 LG유플러스 사이트에서 단말기를 새로 사고, 이 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면 월 1만원씩 24개월간 총 24만원을 돌려준다. S20 학생증 체크카드면 전월 사용액에 따라 최대 3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측은 “신한금융그룹 인프라를 활용해 체크카드 경쟁력 강화·미래고객 확보 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스타크래프트, 올 여름 UHD로 만나요”

(초고화질)

비즈 & 피플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CEO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CEO는 “패치 1.18이 적용되면 누구나 브루드워를 다운로드하고 즐길 수 있다”며, 스타크래프트 무료게임 전환을 알렸다. 리마스터는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구매가능하다.

과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리마스터 버전은 4K 초고화질(UHD) 해

상도 그래픽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개선된 음향 효과 등도 도입했다. 한국어를 포함한 총 13개 언어로 현지화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모하임 CEO는 “앞으로 20년 혹은 그 이상 팬들이 스타크래프트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주얼과 음향 및 온라인 지원 체제 등을 현대화했다”고 말했다.

리마스터 버전 출시에 앞서 스타크래프트는 무료 게임으로 전환된다. 19주년이 되는 31일 게임 내 1.18패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아 즐길 수 있다. 리마스터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는 옵션으로 구매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모하임 CEO는 이와 관련 “패치 1.18이 적용되면 누구나 브루드워를 다운로드하고 즐길 수 있다”며 “리마스터는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구매가능하며 가격을 비롯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리마스터 버전 출시’ 한국어서 최초 발표

비주얼·음향·온라인 지원체제 업그레이드

스타크래프트가 국내 e스포츠 발전을 견인한 종목이었다는 점에서 리마스터 버전에 대한 e스포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모하임 CEO는 “스타크래프트에 있어 e스포츠는 중요하고 계속해서 e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도 “구체적인 채널과의 협상은 아직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모하임 CEO는 지난 24일 서울 상암동 서울OGN e스타디움에서 진행한 ‘오버워치’ 대회 ‘오버워치 APEX’ 시즌2 4강전을 참관하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26일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아이 러브 스타크래프트’행사에 참석해 ‘레전드 매치’와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2 리그’ 등 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겼다. 그는 또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들의 연간 계획을 살피는 한편 PC방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